

YWAM의 유업으로 받은 4개의 말씀들

나는 2015년에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로렌은 6월 말에 80세가 되었고 전 세계의 YWAM 사람(YWAMer)들이 중요한 이정표를 축하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로렌은 그렇게 하고 싶어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사실을 부인한 것이 아니라 관심의 중심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족들과 파티하고 아이스크림콘을 먹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다행히도 우리의 좋은 친구인 데이빗 해밀턴은 로렌의 마음을 잘 알고 있으며 그 딜레마를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창의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2015년 9월에 72개국에서 온 약 1,300명의 간사들과 리더들이 호주 타운스빌에서 “YWAM Together”로 모였습니다. 생일 선물로, 행사가 끝날 때 우리는 로렌이 우리 역사를 통틀어 Youth With A Mission 에 가져온 주님의 네 가지 핵심 말씀을 되돌아보며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것들이 “네 가지 유산으로 받은 말씀들”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각 유업의 말씀들은 온 회중앞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말씀을 주셨는지 회상하는 이야기 형식으로 로렌에게 제시되었고 팡파르와 관련된 선물 증정도 있었습니다. 그 시간은 6명의 태평양 "전사들"이 어깨에 매고 가져 온 거대한 생일 케이크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것은 네 번째 유업의 말인 성경 빈곤 퇴치(End Bible Poverty Now)를 나타내는 성경 모양이었습니다. 전체 과정은 기쁨과 웃음과 하나님이 로렌을 통해 YWAM 과 그리스도의 몸 에 주신 말씀의 규모를 경외심 가득한 생각으로 가득 찼었습니다. 그래서 로렌은 예수님과 우리에게 하신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 그의 “파티”를 충분히 즐길 수 있었습니다!

- 달린 커닝햄

유업의 말씀 #1:

파도의 비전 (The Vision of the Waves) – 1956

YWAM 의 기초 언약

1956 년 6 월, 로렌 커닝햄은 네 명의 젊은 형제들과 함께 음악적 재능이 있는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바하마(BAHAMA)에 가 있었습니다. 로렌은 만 21 세가 되는 생일을 며칠 앞둔 수요일 오후 3 시에 간단하게 꾸며진 선교사 손님방에 있는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어떤 설교를 해야 할지 주님께 물으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던 중, 흰 벽을 올려다 보았는데 예상치 않았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를 회상하며 로렌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 지도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지도가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모든 대륙들 볼 수 있었는데 해안으로 파도가 치기 시작했습니다. 각각의 파도는 대륙으로 들어갔다 나왔다가 온 대륙이 파도로 덮일 때까지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파도는 나와 또래이거나 더 어린청년들로 변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대륙을 덮었습니다. 그들은 길거리에서 술집에서 바깥에서 사람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집집마다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위해 모든 곳으로부터 모든 곳을 나아갔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나타났던 것과 같이 그대로 사라져버렸습니다.”
(로렌 커닝햄과 제니스 로저스 공저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에서 발췌함)

하나님은 이 파도의 비전을 통해 로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렌에게 그의 꿈을 나눠 주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초청은 4 년뒤에 YWAM 을 시작하게 하였습니다. 한 세대 안에 수 백만명의 젊은 청년들이 파도의 비전 때문에 그들의 삶은 하나님 손길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젊은이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날 바하마(BAHAMA)에서 로렌을 만나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바뀌었습니다. 그 사건을 되돌아 볼 때 역사를 통틀어 하나님이 그의 마음과 세상을 향하신 그의 목적을 나누기 위해 들어 오셨던 유사한 순간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 우리는 예상치 못한 이 환상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운명을

결정짓고 새로운 선교 운동을 탄생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로렌에게 주신 기본적인 언약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운동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이 언약적인 환상에 주요한 요소들은 무엇이였을까요?

첫번째는, **젊은이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 현실이면서 더 큰 것을 위한 은유적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젊은 이들을 지지하는 일에서 멀어진다면 YWAM 지파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멀어집니다. 은유적으로는 선교 규제 완화와 혁신의 언어입니다. 20 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젊은이들을 선교사 후보자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로렌이 환상을 받았을 당시에는 단순히 할 생각조차 못했던 일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언약의 환상은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은 방식으로 하도록 우리를 계속 부르십니다. 이것은 지상 명령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사도적으로 영안에서 새롭고 기업가적인 시도들을 탄생하도록 이끌라고 부르십니다. 또한 전염성 있는 개척자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공동 창조자로서 다른 사람들을 새로운 방법으로 새롭게 시도하도록 격려하도록 우리를 부르신다.

두번째로는, **모두와 전부**에 관한 것이다. 젊은이들의 파도는 각 대륙에 있는 모든 열방을 덮었다. 우리는 국제적이며 포괄적이며 다 포함해야 한다. 우리가 모든과 전부에 대한 시야를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운동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시야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지리적인 모두만에 제한 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각 나라와 각 언어와 사회의 전 영역과 인간의 삶과 경험의 다양한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이 언약은 우리 성장의 동력이 됩니다. 이것은 파도가 반복적으로 일어나 계속적으로 퍼져가는 파도를 말합니다. 이것은 이 환상이 많은 세대에 걸쳐 반복적으로 배가되는 비전을 반복해서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각 파도는 앞서 간 파도 위에 세워집니다. 각 파도는 이전에 성취한 것과는 다른 새로운 높이에 도달하며 새로운 방법으로 신선한 영향을 줍니다. 이 것은 절대로 정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없는 곳을 향해 역동적으로 나아 갑니다.

유업의 말씀 #2:

사회에 영향을 주는 영역(The Spheres of Influence) – 1975

사회의 7 가지 영역에 영향을 주는 것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유업의 말씀은 영적 유산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다음의 이야기가 중요하게 관련됩니다.

로키산에서의 계시

커닝햄 가족이 콜로라도 로키 산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을 때, 공원 관리소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C.C.C 의 창시자 빌과 보네트 브라이트 부부였는데 로렌과 달린이 주말에 저녁식사를 함께 할 수 있을지 묻는 전화였습니다. 로렌은 간절히 가고 싶어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새로운 계시를 간절히 나누고 싶어했습니다. 어떻게 열방이 제자화될 수 있을지 이해를 갖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마침 문화의 세계관과 신념들과 가치들을 형성하는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7 가지 영역에 대해 깨닫게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것을 계시였습니다. 로렌은 “우리가 단순히 이 각 7 개 영역에 하나님 나라의 원리들을 가지고 실행할 수 있게 가르칠 수 있다면 우리는 열방과 지역 사회에서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녁 식사하기 위해 그들이 만났을 때 로렌의 외투 주머니에는 새로 받은 아이디어를 적은 황색 노트가 들어있었습니다. 빌과 악수를 나눈 뒤 그 종이를 꺼내기 위해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는데 빌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로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믿을 수 없을 거예요. 우리가 열방을 변화시키고자 하려면 사회의 7 개 영역에 영향을 끼쳐야 한다는 거예요....” 빌에게 한방 제대로 얻어맞은 기분이었지만, 로렌은 곧 하나님께서 며칠 전에 주셨던 계시와 똑같은 계시를 친한 동역자에게도 주심으로 확인시켜 주신 것에 큰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 일이 있는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1975 년 여름, 달린은 라브리 공동체 창시자인 프랜시스 쉐퍼 박사의 라디오 강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역시 열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사회의 7 개 영역에 성경적 진리를 심어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고 동일하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그들의 주의를 끄셨습니다. 하나님은 지상 명령을 수행을 전략들에 대해 말씀하고 계심이 분명했습니다.

2 년 후에, 이 새로운 이해를 바탕으로 커닝햄은 그들의 친한 친구인 하워드 맘스타드 박사와

함께 열방 대학(University of the Nations) 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국제적 디지털 시대에 결과적으로 200 여개국에서 온 젊은 남녀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준비시키는 선교 사역자를 배가하기 위한 기독교 대학의 새로운 모델이 되었습니다. 살면서 배우는 이 새로운 훈련의 목표는? 7 개의 사회에 영향을 끼는 영역에 하나님 나라의 원리들을 의도적으로 적용하며 열방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사회에 영향을 주는 7 가지 영역

잘 구성된 미스터리 소설의 마지막 장을 읽으면 독자들을 피해갔던 모든 실마리들이 미스테리를 해결할 수 있게 인도해 가는 틀림없는 패턴들을 보여주면서 제 자리에 들어 맞습니다. 특히 유능한 탐정이 마지막 증거를 제시할 때 모든 것은 분명해 집니다. 그 다음에 당신이 이 소설을 다시 읽어보면 처음 읽었을 때 불분명하던 사건들이 분명해 집니다. 이와 비슷하게 사회에 영향을 주는 7 가지 영역에 대한 틀에 대한 이해들도 처음에는 이 틀에 대한 이해없이 읽었을 때는 하나님이 영감을 주신 개념들을 쉽게 간과하게 되어 본질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재차 읽어야 합니다. 그러나 말씀 속에 숨어있는 패턴을 보기 시작하면 그냥 여기 저기 몇 군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들어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인간의 역사를 통해 열방을 제자 삼는 것에 관심을 가진 하나님 말씀의 학생들이 분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향한 메시지

이 메시지를 위한 시간이 무르익었습니다. 최근에 7 가지 8 가지 심지어는 12 가지 영역들이라고 하면 이 주제에 대해 몇가지 변화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원리는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개인들을 창조하셨고(창 1:26-27) 죄와 깨어짐에서 그들을 구속하기 원하시며 그들을 사랑하신다.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은 열방을 창조하셨고(행 17:26-27)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모든 사회적 차원에 하나님 나라의 변화를 가져오기 원하신다. 그래서 당신이 이 실재를 “영역(Spheres)”이나 “생각을 형성하는 것(Mind-Molder)”라고 부르든지 “산(Mountains)”이라고 하든지 개인들과 인류 전체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가르키고 있습니다. 이 같은 하나님이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개인들(왕, 장군, 과부)에게 말씀하시고 때로는 인간의 공동체 (지파, 도시, 나라)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개인들을 향한 마음과 잃어버린 나라들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사적으로 대중적으로 삶의 모든 영역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변화를 가져오는 영향들을 가져오는데 하나님과 함께 일하도록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이 7 개의 영역들은 가장 원시적인 석기 시대 부족들에게 부터 가장 발달한 대 도시까지 다 존재합니다. 그것들은 가족, 경제, 정부, 종교, 교육, 미디어와 축하 영역을 포함합니다. 기본적인 생리 시스템이 하나님의 디자인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건강하게 기능할 때 생명을 공급하는 인간의 몸을 위한 것처럼 7 개의 영역은 모든 사회에 동일한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영역을 디자인 하셨기에 각 영역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려는 노력으로 헌신하는 것이 우리에게 좋습니다.

인간의 경험의 어떤 부분도 하나님 나라의 경계 바깥에 살아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안에서 우리 삶을 살아가는 *코람 데오(Coram Deo*; 역주: 하나님 얼굴 앞에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사적으로 공적으로 우리 삶의 모든 차원에서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회의 영역에 하나님을 올바르게 대표할 수 있는지 가르쳐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이 새로운 이해들이 모든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영역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신실하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발견하도록 우리 모두를 도우시길 바랍니다..

유업의 말씀 #3:

기독교 대 헌장(The Christian Magna Carta) – 1981

1981 년 말에 YWAM 리더들이 제 1 회 국제 전략 회의를 위해 코나에 모였습니다. 그 해는 YWAM 이 설립된 지 21 주년이 되는 해였으며 리더들은 우리 단체의 나이가 “찢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해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 지에 대한 큰 기대가 있었습니다.

리더들은 회의 첫 모임으로 모였을 때 그들은 깊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가 끝나갈 무렵, 로렌은 “우리의 목표는 우리 자신의 의제를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기에 앞서 각자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듣고 다시 모여 서로 나눕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각자 흩어져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로렌이 홀로 있자마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다고 느꼈습니다. 로렌은 “기독교 권리 장전이 될 것이라고 이해한 것들을 가능한 한 빨리 적어내려 갔습니다.” 라고 보고했습니다.

본래 권리 장전은 1215 년에 영국에서 제정된 유명한 역사적 문서입니다. 이는 기본적인 인권의 기초를 자세히 기술한 최초의 정치적 문서 중에 하나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기독교 권리 장전은 모든 인간이 가진 복음의 권리들을 세세하게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의 수혜자가 될 모든 사람들의 눈으로 본 지상 명령을 의미한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음 6 개 조항은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마 25:40)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생애에 말씀과 행동을 보여주는 설득력있고 총체적 대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 헌장

로렌 커닝햄 - 1981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2. 모국어로 된 성경을 소유할 수 있어야 한다

3. 크리스천 공동체가 근처에 있고 매 주 정기적으로 기독교 공동체와 교제하며 성경의 가르침을 받으며 그리스도의 몸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야 한다
4. 그들의 자녀들이 기독교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5. 삶을 위한 기본적인 필요들인 음식, 물, 옷, 집과 보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6. 영적, 정신적, 사회적, 정서적, 육체적으로 생산적이며 성취하는 삶을 살아 갈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이 선언문을 실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헌신한다.

YWAM International Leadership 1981

유업의 말씀 #4:

성경 빈곤 퇴치 End Bible Poverty – 1967

네 번째 영적 유산은 YWAM 초창기 청년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러 떠났을 때 열정적이었던 말씀입니다. 1967 년 로렌은 단기선교 여행 팀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로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한 YWAM 팀과 함께 멕시코에서 중앙아메리카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먼지가 날리는 멕시코의 한 시내에 핑크난 자동차 타이어를 고치려고 멈췄습니다. 몇 명은 수리를 하고 있는 동안 나머지 팀원들은 요한복음서를 각 가정에 나누어 준 다음 노방 전도를 했습니다.

모임이 마친 뒤, 색이 바랜 빨간 원피스를 입은 한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나의 스페인어가 유창하진 않았지만 그 여자가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는 있었지요. '우리 동네에서는 성경을 얻을 곳이 없고 주변 마을에서도 얻을 곳이 없어요. 혹시 스페인어로 된 성경을 가지고 계신가요?'

여기저기를 뒤져 스페인어 성경을 찾아주었습니다. 그녀는 성경을 감숨에 꼭 안고는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했습니다.

그곳을 떠나는데, '우리말로 된 성경을 가지고 계신가요?'라고 물었던 그녀의 말이 내 마음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내 눈에 성경에서 '환상'이라고 부르는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세미 트럭이 아니라 아주 큰 이삿짐 트럭 같은 큰 트럭이 보였습니다. 트럭 옆에는 페인트로 이렇게 쓰인 것이 보였습니다. 'Sólo los deshonestos temen la verdad. Santa Biblia, gratis.'

스페인어를 잘 몰랐기 때문에 스페인어로 생각하지 않는데 그 문장을 스페인어로 보는 것이 자체가 놀라웠습니다. 머리속으로 찬찬히 번역해 보았지요. 이런 뜻이었습니다. '정직하지 않은 자만이 진리를 두려워한다. 무료 성경' 얼마나 멋진 아이디어인가요! '정직하지 않은 자만이 진리를 두려워한다'는 이 문장은 내게는 완전히 새로운 문장이었지만 머릿속에서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공산주의가 라틴 아메리카 전역으로 퍼져 나가던 때라 특별히 적절한 문구였습니다.

환상은 계속되면서 젊은이들이 트럭 뒤쪽에 서서 성경을 갈망하며 빠르게 받으려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전달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열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책”, 로렌 커닝햄, 2007, YWAM 출판, 184-18
페이지(영어 원본)에서 발췌함)

그 해 여름 멕시코에서 대학생들에게 5 만권의 신약을 젊은이들에게 배포하면서 이 환상은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빛 바랜 붉은 드레스를 입은 여인과의 만남이 “멕시코를 위한 성경”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 후로도 세계 12 개국에서 성경을 배포하는 사역을 탄생시키게 되었습니다.

그 후 2003 년 싱가포르에서 열린 열방 대학 워크숍에서 로렌은 하나님께 받은 새로운 소명으로 강력하게 도전했습니다. 그 때가 YWAM 이 표류하고 있다고 깨달은 시기였고 우리는 의도적으로 전 세계에서 새로운 파도의 사도적 시도들을 보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유전 인자(DNA)을 가지고 재 정렬하던 시기였습니다. 로렌은 “우리는 2020 년까지 전 세계 각 가정에 성경이 놓이기를 원합니다. 그 성경은 그들의 모국어로 번역되어 있어 그들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2020 년은 로렌이 85 세가 되는 해이기에 로렌의 마음의 부르짖음은 85 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수 14:12).” 라고 외쳤던 갈렙과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성경 빈곤 퇴치 운동을 향한 로렌의 도전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2014 년 후반에 달린과 몇몇의 YWAM 리더들과 함께 로렌은 세계를 다니며 성경 빈곤 퇴치 운동의 비전을 나누고 협조를 구하며 주요한 정교회, 천주교, 성공회, 개신교 리더들을 만났습니다. 이 영향력 있는 리더들 가운데 이 주제를 가지고 큰 연합함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성경 빈곤 퇴치 운동 언약”이 문서화 되었으며 성경 사역을 위한 기도, 번역, 출판, 배포, 교육과 동기를 부여하는 모든 과정에 크리스천들의 참여와 헌신을 촉구하게 되었습니다.